



성전 건축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이번 주 묵주기도 중 기억할 분들 (8월 31일 ~ 9월 6일)

월	남보경 파우스티나, 양밖음 로사리아, 홍미림 효주아네스, 권정문 켄마, 손옥순 로사리아, 이선녀 크리스티나, 정규희 레지나, 배하영 노엘라, 이성근 토마스, 이규철 모이세, 이유찬 사도요한, 조은정 세레나, 김광철 도미니코, 박미영 글라라, 김정숙 저스티나
화	박영진 마리아, 남호은 히지노, 박현영 오티리아, 최명희 카타리나, 최구혁 요아킴, 조정애 안나, 황연진 세실리아, 정하나 베로니카, 이용연 베아타, 김정애 로사, 이정관 요셉, 엄지미 안젤라, 이유경 로사, 박애너스 아네스, 곽중혁 요한
수	서경자 엘리사벳, 김영선 수산나, 진미경, 이정우 브루노, 박성관 요셉, 최용분 마리아, 이영희, 김민숙 로사리아, 이옥란 미리암, 신현숙 세실리아, 김은희 레지나, 김상기 요셉, 김별이 엘리사벳, 김지영 소피아, 문은숙 올리바
목	배순득 아네스, 김정무 알베르토, 유명민 비오, 공연희 요셉피나, 최상득 안드레아, 송숙녀 아네스, 김정은 소피아, 강영순 아네스, 구다현 율리타, 유재훈 라자로, 이가영 사비나, 주순희 데레사, 변수정 루치아, 송명순 리디아, 송서호 가브리엘
금	홍영조 마태오, 서민수 레오, 오경자 아가다, 박정옥 루피나, 심미주 율리아, 이은진 제인, 김정임 이레네, 김왕영, 하경성, 김지혜 소피아, 이경자 아네스, 김동헌 베드로, 김지영 루피나, 김태완 아벨, 주정열 세실리아
토	허정자 그라시아, 김유리 비비안나, 김영숙 율리안나, 김창일 레오, 이혁준 미카엘, 장순옥 아나스타시아, 장기정 니콜라오, 김복환 아네스, 김지연 소피아, 김영희 데레사, 황봉호 크리스토폴, 김미란 아네스, 김인수 수산나, 이호근 스테파노, 한현숙 글라라
주일	이우순 시릴라, 박경선 요나, 김기옥 마리아, 정소순 크리스티나, 김경희 안나, 이충매 안젤라, 진선희 아네스, 원정아 루치아, 현옥현 릴리아나, 서정표 세레자요한, 신낙근 바오로, 장지혜 마르가리타, 양승언 미카엘, 이동락 요셉, 원서연 클라우디아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1명 중 주일미사 191명 참례 / 참례율 : 26.86%

평일미사	토 (8/22)	월 (8/24)	화 (8/25) 내촌 / 본당	수 (8/26) 본당 / 송정	목 (8/27) 송정 / 본당	금 (8/28)
	15명	10명	14명 / 32명	19명 / 11명	13명 / 24명	12명
주일미사 (8/23)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19명	36명	31명	23명	65명	17명



2026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살아 있는 물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시기를 보냅니다. 창조시기 기간 동안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주제와 상징의 성경 본문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 이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에제 47,9,12.).

올해 주제인 “살아 있는 물”은 에제키엘서 47장 9절과 12절에서 희망과 생태적 치유라는 강력한 성경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유배와 상실의 아픔 한가운데서 하느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살아 있는 물의 이미지는 하느님의 치유를 드러내고, 그 치유는 땅과 물, 생물 다양성,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새롭게 일깨웁니다. 이 상징은 하느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에 불과하지만, 갈수록 깊어지면서 죽어 있는 곳에 생명을 가져다주고 훼손되거나 메마른 생태계를 회복시켜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물로 들어가 하느님 생명의 강의 일부가 되어, 창조세계를 치유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2. 에제키엘서 47장 9절과 12절의 역사적 배경

이 본문은 정치적, 사회적, 신학적,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바빌론으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강 기슭에 앉아 울며 탄식합니다(시편 137[136]편 참조).

에제키엘서는 기원전 6세기 초, 예루살렘 함락 후 바빌론 유배 시기가 배경입니다(에제 1,1). 사제였던 에제키엘은 유배된 이들 중 하나였으며, 하느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에제 3장; 33,1-9).

에제키엘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중심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를 바빌론 군대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느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에제 7-10,21장). 그러나 에제키엘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제키엘은 하느님의 통치가 성전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하느님께서서는 유배된 이들과 함께 계시고, 회복을 약속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의미 있는 점은 성전이 에제키엘의 회복에 대한 환시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에제 40-47장). 더럽혀지고 파괴되었던 성전이 이제 모든 창조세계에 대한 축복과 치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변모합니다. 에제키엘서 47장에 묘사된 놀라운 강은 이 회복된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주님께서 다시 당신 백성 가운데 머무르실 때, 온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1주일

주일 헌금	1,019,000	주일헌금(송정)	149,000	교무금	895,000
양성, 복지, 원로	40,000	미래 기금	55,000	감사헌금	150,000

교무금 이효순, 김종녀, 김은자, 김석기, 이형귀, 신명자, 정동주, 안유례, 박인옥, 최정화, 박갑춘, 문민자, 권복만, 문창순

감사헌금 권선화(에스텔) 100,000 박희갑(도비아) 5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8월 28일 기준

구 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수입	우리 본당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270,000	10,032,000
		약정 기부	3,600,000	146,590,000
		2차 헌금	819,000	9,137,950
		기타 수입		17,505,463
	외부 모금	타본당 모금	13,705,000	138,987,326
		매일미사	13,875,000	53,895,000
		평화방송	8,570,000	26,316,000
		가톨릭 평화 신문	783,000	9,272,000
		가톨릭 신문	2,550,000	31,498,000
		기타 후원	1,513,000	20,519,000
합 계		45,685,000	463,752,739	
지출	건축	설계비		36,041,570
		건축 준비비	1,600,000	7,560,000
	모금 홍보	광고비	13,200	34,751,200
		모금 준비비	315,590	4,068,140
		봉사자 지원비		1,440,850
	합 계		1,928,790	81,932,970
현 잔액			1,046,738,895	

본당 약정기부 약정기부 143세대 187,300,000원 중 146,590,000원 납부 (납부율 78.26%)

신필섭, 사정애, 박광열, 윤영진, 이명희, 김준희, 유예지, 박기범, 문경숙

타본당 모금

스무쥬성당 3,120,000원 정혜영, 이우순, 김근화, 김명숙, 고석순, 이명숙, 윤창섭, 백정자, 이진선, 유창연, 박홍진, 이미화, 강정순, 박경선, 손춘자

죽림동성당 1,735,000원 박부용, 유승희, 이서준, 이민준, 정은지, 김기옥, 정소순, 엄명자, 손문자, 김자운, 손명자, 김경희, 이충매, 송한주, 남궁주일, 진선희, 목진수

교동성당 8,850,000원 김정자, 최신부, 최추현, 조선희, 조은미, 김인옥, 유연희, 정유미, 손정혜, 김명혜, 심영숙, 박선희, 이명자, 이경자, 함은옥, 김범수, 문선옥, 김송철, 조현숙, 이해원, 김창일, 이완옥, 임혁진, 홍성우, 김종구, 최해옥, 신미선, 조광자, 김원숙, 강연자, 최옥희, 김정옥, 노남덕, 박향화, 김진옥, 박치영, 양천석, 김정옥, 이재학, 강성숙, 홍기석, 이남순, 정옥녀, 김윤철, 최계성, 김정숙, 조범현, 양인옥, 박주현, 정용현, 한상준, 이상배, 윤이나, 김현정, 김춘자, 허민영, 최유주, 이진경, 이윤경, 원소영, 박주영, 김정수

매일미사 안영화, 김운전, 권베로니카, 김기용, 김규옥, 유영근, 허숙영, 박희순, 박준환, 이재억, 이정환, 박혜련, 이현숙, 노경혜, 이요셉, 강미란, 박진수, 김혜원, 변현지, 국순옥, 유승헌, 나효경, 이송학, 김월순, 유호승, 정순철, 김태진, 최요안나, 황애현, 장수희, 김덕숙, 조미리, 김동규, 목영애, 양귀자, 서철호, 안선주,

평화방송 하정우, 안재인, 전상녀, 문옥수, 홍영애, 김용일, 최은애, 정순복, 임옥, 정현주, 유길례, 노정혜, 심추자, 임범진, 문형숙, 강태희, 이정섭, 홍춘자, 신호순, 조나라, 정연숙, 신순남, 김순금, 최영자, 서진우, 윤숙자, 이종현, 박미화

가톨릭신문 김춘자, 표남성, 김숙희, 황인선, 박복희, 김도영, 송주연, 김경란, 엄미숙, 정상옥, 정원석, 박혜연, 김영자, 김용승, 장애연, 정태수, 이경우, 박다정, 유명희, 유경남, 서복, 김순달, 이은선

가톨릭 평화 신문 장현식, 김준현, 김도성, 박익선, 정명희, 김윤호, 배진숙, 안영자, 박동옥, 김영환, 김익현

기타 후원 윤소희, 이현숙, 배노미, 신영자

지출

건축 준비비 지반조사 비용

광고비 ARS 이용료

모금준비비 무 종자 구입(건축기금 모금 선물용) 295,400 모금용 휴대폰 요금 20,190

레지오 훈화 1-1. 성모 공경의 역사 (1)

로마 교회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무대였던 카타콤바에는 200년경에 그려진 성모 마리아의 그림들이 남아 있다. 성모 공경의 흔적이다. 사실 성모 공경은 이미 성경에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으며 함께 기도 생활을 하였다(요한 19,27; 사도 1,14 참조). 아기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서 마리아의 역할은 마태오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고, 루카 복음서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처음부터 목격자가 전해 준 대로 기록하고자 하였던’(루카 1,2 참조) 루카 복음사가는 성모 마리아를 아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증언을 그대로 알려 줄 수 있었던 증언자로 채택하고 있다. 루카 복음사가는 무엇보다도 성모 마리아야말로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분’으로서 아기 예수님의 증언을 위한 책임자로 보았다(루카 1,45; 2,19; 2,51 참조).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된 이러한 성모 공경은 교회 역사에서 네 가지 성모 교의로 집약되고, 성모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기도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 또한 그 시작부터 성모 공경의 탁월한 신심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순교자들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간직하고 실천하였다. 특히 신유박해 이후 1811년 조선 교회 신자들이 북경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서 조선 교회가 재건될 수 있기를 간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36년에는 성모님을 특별히 공경하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서 목주 기도를 바치는 ‘매괴회’가 설립되었으며, 교우들이 자신들을 성모님의 종으로 바치고 특별한 보호를 구하고자 하는 ‘성의회’도 이 무렵에 설립되었다. 제2대 조선교구장 앵베르 주교는 1838년 12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를 조선 교회의 주보로 정하여 줄 것을 교황청에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레고리오 16세 교황께서는 그때까지 주보로 모시던 중국 교회의 주보 요셉 성인을 함께 모실 것을 조건으로 1841년 8월 22일에 마리아를 조선교구의 주보로 승인하셨다.